

긴급사태 선언 발령에 대해
시민 여러분에게 드리는 메시지

후지사와시장 스즈키 쓰네오 입니다.

정부는 1월 7일에 가나가와현을 포함 1도3현
(1都3県 : 도쿄, 가나가와, 치바, 사이타마)에 대해 긴급사태 선언을 발령하였습니다.

후지사와시에서 확인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코로나 19) 신규확산자는 11월에 152명, 12월에
310명 등 월별로 보면 과거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1월이 되어서도 감염확대가 줄어들지 않고 12월을
웃도는 페이스로 급증하고 있어 우리가 염려해 온
의료제공체제가 기능부전(붕괴) 되기 직전의 매우
심각한 상황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감염위험을 낮춰 감염확대를 막기
위해서는 사람과 사람의 접촉 기회를 가능한 한
억제해야 합니다. 후지사와시가 주최하는 행사나
강좌 등을 중지하거나 연기하며, 후지사와시 시설은
일부를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휴지 합니다. 대상이
되는 시설이나 행사 등에 대해서는

후지사와시 홈페이지에서 수시로 정보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시민 여러분께서는 불편하시겠지만
이해와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생활에 필요한 경우를 제외한 외출이나 이동은
자제를 부탁드립니다. 특히 밤 8시 이후의
불요불급(不要不急)의 외출 자제를 철저히
부탁드립니다. 감염되지 않기, 감염시키지 않기 위한
감염예방 대책과 정부의

코로나 19 감염 대책 분과회가 제창하는
「감염 위험이 높아지는 5개 상황」을 방지하는
행동을 철저히 해주십시오.

자신과 소중한 가족, 친구들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의료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적절한 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어떻게 해서든 의료 붕괴를 막아야합니다.

지금이 바로 중요한 시기입니다.

우리들 한 명 한 명이 남의 일이 아니라, 자신의
일이라 생각하며 행동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코로나 위기를 ALL 후지사와(ALL FUJISAWA)
정신으로 맞서서 극복합시다.

2021년 1월 8일
후지사와시장

鈴木恒夫